

- 2021학년도 1학기 -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 일시 : 2021. 3. 10.(수) 11:00
- 장소 : 대학본부 2층 대회의실

강릉원주대학교
GANGNEUNG-WONJU NATIONAL UNIVERSITY

2021학년도 1학기 제1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시작 및 종료일시		2021. 3. 10.(수) 11:00~11:50	장소	본부동 2층 회의실
참석 현황	참석의원	박철원 의장, 박준철 부의장, 신준 의원, 권광준 의원, 이승일 의원, 윤세훈 의원, 박수권 의원, 윤기영 의원, 권순찬 의원, 조재현 의원, 이동혁 의원		
	불참의원	정상환 의원, 김세훈 의원, 여은정 의원, 한기련 의원, 이해인 의원, 김윤묵 의원		
	참 고 인	기획협력처장		
	참 관 인			

구 분	부 서 명	회 의 결 과
보고사항	기획평가과	☐ 강원도 국립대학(강릉원주대학교-강원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상생·발전 모델 개발 추진 현황 ○의장: 개회 선언 후, ‘강원도 국립대학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모델 개발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기획협력처장: 보고사항의 내용을 설명함 ○윤기영 의원: 우리대학에서 그동안 정원조정 등의 여러 자구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배경에 대해 질의함 ○기획협력처장: 2024년 12만명의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생을 위해 두 대학이 접근하는 것이며, 우리 대학의 가장 큰 이슈는 '21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미달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변함

구 분	부 서 명	회 의 결 과
		'21학년도 입시를 분석한 결과 지역중심대학이 대부분 미달 사태가 발생했고 거점대학과 수도권 인접대학으로 이동이 현저하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됨을 설명함 올해의 입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입시 전략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윤기영 의원: 통합에 대비한 우리대학의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에 대해 질의함 ○기획협력처장: 강릉캠퍼스의 해양과 에너지 및 신소재, 원주캠퍼스의 의료기기와 수소자동차 등을 특성화 전략으로 추진해 왔으나 올해의 입시에서 예상 밖으로 관련 학과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기존의 추진전략을 유지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단과대학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함 신입생 충원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이공계열 학과에서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도 이공계열 학과에서 다수의 미충원이 발생하여 탄력정원제의 도입이 불가피함을 설명함 ○윤세훈 의원: 2주기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별 강제 정원 조정을 하는 대신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유지충원을 지표로 도입하였는데 앞으로는 신입생을 충원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며, 재정지원 예산도 유지충원과 연계하여 지원됨을 설명함 사립대학의 경우 정원 조정 등 정부 재정지원 지표에 신속하고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므로 우리대학의 통합논의는 대학 존립과 관계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구성원 모두가 체감해야 함을 설명함 ○조재현 의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는지 질의함

구 분	부 서 명	회 의 결 과
		○기획협력처장: 영상 등을 통해 통합대학 또는 연학대학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장단점에 대해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다고 답변함 앞으로 동문회 설명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견수렴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연구 용역이 7월 경 마무리 될 예정으로 그 시기 이후에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설명함 ○박수권 의원: 연구용역의 내용이 연합이던 통합이던 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참고자료에 불과한지 질의함 ○기획협력처장: 캠퍼스별 특성화 및 중복학과의 문제로 학과 간 이동이 발생할 경우 지역사회와의 마찰 등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학생 맞춤형 전공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용역의 내용이 그러한 논의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함 학과 단위의 특성화가 아닌 분야별 특성화를 통하여 모든 학과가 특성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할 계획임을 설명함 대학 전체의 입학정원은 유지하면서 학생충원이 유리한 학과에 정원을 더 배정하는 것이 탄력정원제의 핵심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반영할 예정임을 설명함 ○의장: 한림대학교의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기획협력처장: 한림대학교에서 홍보를 많이 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사립대학과 국립대학은 추진 속도가 다르고 원주와 춘천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아 학생들로부터 선택이 쉬운 점이 있다고 설명함

구 분	부 서 명	회 의 결 과
		○윤세훈 의원: 학사구조 변경 일정은 2년 전에 교육부에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변경 가능하며 입학전형도 대교협의 승인받아 조정이 가능하므로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23학년도가 아닌 '24학년도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게 되며 '24학년도에는 학령인구가 이미 40만명 대로 줄어드는 상황임을 설명함 ○신준 의원: 원주캠퍼스를 공동캠퍼스로 하는 계획에 대해 질의함 ○기획협력처장: 앞으로의 고등교육의 정책방향은 대학과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강원도에서는 혁신 도시에 4~5층 정도의 건물을 건축하여 수소자동차 분야를 특성화로 하여 지역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공동캠퍼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의장: 지난달에 발표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을 요청함 ○기획협력처장: 대학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문·이과 통합이나 고교학점제 등의 정책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여 대학에서 해당 정책 내용을 대학의 학사구조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였는지를 평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함 ○윤세훈 의원: 지역 국립대학에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며, 고교학점제 운영에 있어서도 대학이 협력하여 지원하도록 역할을 부여하는 것임을 설명함 ○윤기영 의원: 앞으로 산적한 어려운 해결과제가 많겠으나 캠퍼스 간 이동 최소화와 고용의 안정을 당부함 ○기획협력처장: 당연히 최우선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함

구 분	부 서 명	회 의 결 과
		○의장: 보고사항에 대한 마무리 발언을 요청함 ○기획협력처장: 대학의 생존을 위한 최대한의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추진 할 것이라고 답변함

강릉원주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14조(회의결과의 공개)제5항에 따라 의장을 포함한
출석평의원 3명 이상 서명

대학평의원회 의장 박 철 원 (서명)
 평의원 윤 세 훈 (서명)
 평의원 권 순 찬 (서명)



Handwritten signatures of the members in black ink.

